2026년 03월 09일 | 산업분석_Update

미용 의료기기

밸류에이션, 주요 지표 점검 및 시지바이오 매각 코멘트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3월 06일

클래시스(214150)
BUY | TP 92,000원 | CP 55,300원

파마리서치(214450)
BUY | TP 690,000원 | CP 333,000원

휴젤(145020)
BUY | TP 410,000원 | CP 261,500원

원텍(336570)
BUY | TP 12,000원 | CP 7,290원

밸류에이션 현황: 기타 인젝터블 21.4배>EBD 16.9배>톡신 15.8배

3/6 기준 미용 의료 섹터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는 18.0배로,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19.5배 대비 -8% 수준이다. 업종별 밸류에이션은 기타 인젝터블이 21.4배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고, EBD가 16.9배로 뒤를 이으며 보툴리눔 톡신의 멀티플은 15.8배이다. 업종 내 개별 기업의 멀티플은 기업별 이벤트, 실적 전망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인젝터블 업종은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 제품의 흥행으로 투자자와 소비자 관심도가 상승해 관련 기업들의 멀티플이 섹터 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지표 점검: 수출, 방한 관광객 및 외국인 피부과 소비 성장세 견조

섹터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수출과 방한 관광객 및 외국인 피부과 소비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26년 1월 보툴리눔 톡신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했고, 필러(기타 인젝터블)는 전년동기대비 52%, EBD(에너지 기반 장비)는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26년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13% 성장했고,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수출과 방한 관광객, 외국인 피부과 소비 모두 연중 1분기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1월 수치로 확인한 주요 지표의 성장세는 견조한 수준이다.

IMM PE의 시지바이오 매수, 동종진피 ECM에서의 경쟁력은 그대로

언론에 따르면, IMM PE가 상장사 시지메드텍의 모회사인 시지바이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사에 나섰다고 한다. 시지바이오 지분의 49%는 여전히 기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유현승 대표 체제 하에 척추 치료, 덴탈, 골대체제 등 핵심 사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성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그간 시지메드텍의 주가 상승의 주된 이유가 대웅제약 미용 의료 제품에 준하는 영업망을 통해 ECM 스킨부스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이번 IMM PE의 지분 매수가 ECM 스킨부스터 사업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므로 해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섹터는 아직 저평가 상태, 기대감 강한 ECM 스킨부스터 기업 주목

미용 의료 섹터의 주요 지표인 수출, 방한 관광객 수 및 외국인 피부과 소비는 모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치 대비 하회하며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있다. 한편,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ECM 스킨부스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높은 멀티플을 형성해 기타 인젝터블 업종과 섹터 전체 평균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대감이 높은 ECM 스킨부스터 관련 기업과 섹터 밸류에이션 회복 시점에 주목할 것을 당부한다.

Analyst 김다혜 dahae.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1. 업종별 밸류에이션 점검

1) 미용 의료 섹터 밸류에이션: 18.0배, 전체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 영향

미용 의료 12m fwd P/E 18.0x, 전년대비 -8% 수준, 업종 전반 밸류에이션 조정

3/6 기준 미용 의료 섹터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는 18.0배로,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19.5배 대비 -8%, 3년 평균 대비 -3%, 5년 평균 대비 -13% 수준이다. 미용 의료 섹터 밸류에이션 하락은 업종 전반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난 영향이 크다.

2) EBD, 톡신 업종 밸류에이션

EBD 12m fwd P/E 16.9x, 전년대비 -19% 수준, 클래시스 18.0x, 원텍 11.1x, 아스테라시스 22.3x

3/6 기준 EBD 업종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는 16.9배로,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20.9배 대비 -19%, 3년 평균 대비 -14%, 5년 평균 대비 -11% 수준이다. 1월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는 약 20배 수준으로 작년 평균치 대비 괴리가 적은 편이었으나, 2/25 클래시스의 대주주 베인캐피탈이 약 8% 지분을 블록딜로 거래하며 주가가 11% 하락하며 EBD 업종 멀티플도 함께 하락하였다. **3/6 기준 개별 기업 밸류에이션은 클래시스 18.0배, 원텍 11.1배, 아스테라시스 22.3배 수준이다.**

톡신 12m fwd P/E 15.8x, 전년대비 -6% 수준, 휴젤 18.3x, 대웅제약 11.5x, 메디톡스 23.5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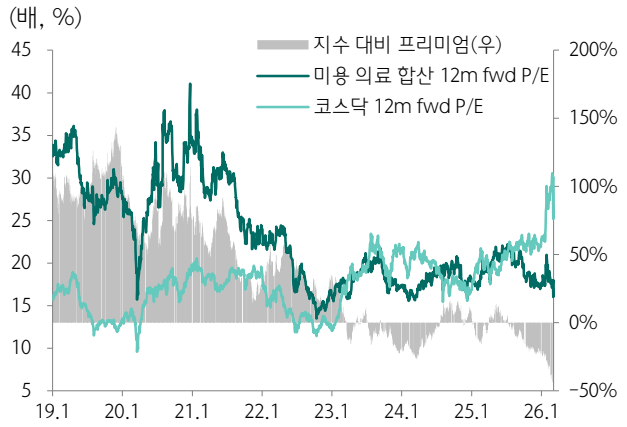
3/6 기준 톡신 업종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는 15.8배로,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16.7배 대비 -6%, 3년 평균 대비 -14%, 5년 평균 대비 -32% 수준이다. 특이사항은 작년 연말 대비 휴젤의 멀티플이 상승하며 톡신 업종 평균 밸류에이션을 견인했다. 휴젤은 연초 JPMHC를 통해 26년 하반기부터 미국 내 직판 조직을 꾸려 기존 대리점과 동시에 영업을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2028년 연간 매출 9천억원, 미국 톡신 시장 점유율 10% 달성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3/6 기준 개별 기업 밸류에이션은 휴젤 18.3배, 대웅제약 11.5배, 메디톡스 23.5배 수준이다.**

3) 기타 인젝터블 밸류에이션

기타 인젝터블 12m fwd P/E 21.4x, 전년대비 -2% 수준, 파마리서치 14.9x, 엘앤씨바이오 117.7x, 한스바이오메드 39.5x, 휴메딕스 10.0x, 시지메드텍 31.8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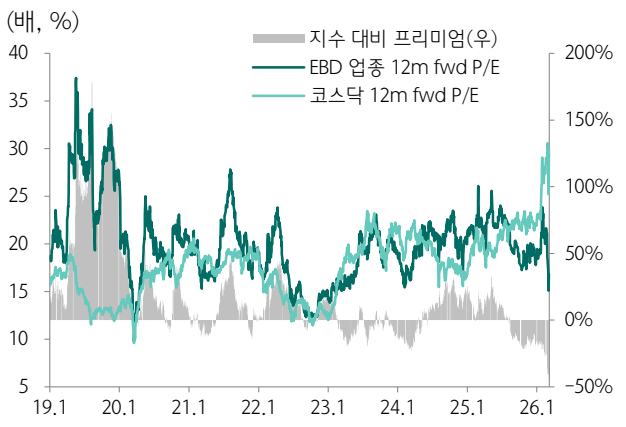
3/6 기준 기타 인젝터블 업종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는 21.4배로 섹터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21.7배 대비 -2%, 3년 평균 대비 +24%, 5년 평균 대비 +20% 수준이다. 특이사항은 작년 연말 대비 파마리서치의 멀티플이 12%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 제품의 흥행으로 그동안 스킨부스터 시장 내 독보적이었던 리쥬란의 입지가 바뀌었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 관심도가 상승함에 따라 ECM 스킨부스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섹터 내 가장 높은 수준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를 형성하고 있다. **3/6 기준 개별 기업 밸류에이션은 파마리서치 14.9배, 엘앤씨바이오 117.7배, 한스바이오메드 39.5배, 휴메딕스 10.0배, 시지메드텍 31.8배이다.**

도표 1. 미용 의료 섹터 12m fwd P/E: (3/6) 기준 18.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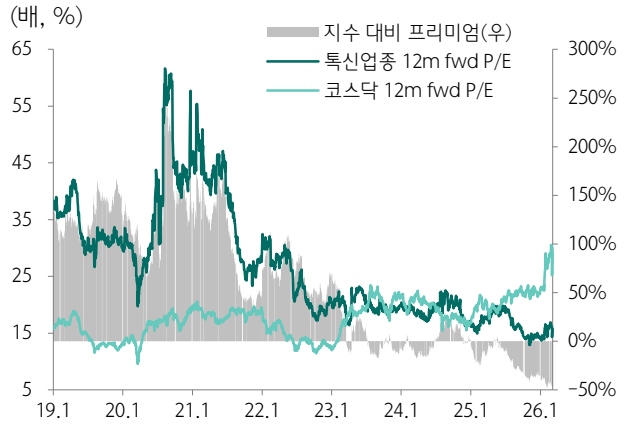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2. EBD 업종 12m fwd P/E: (3/6) 기준 16.9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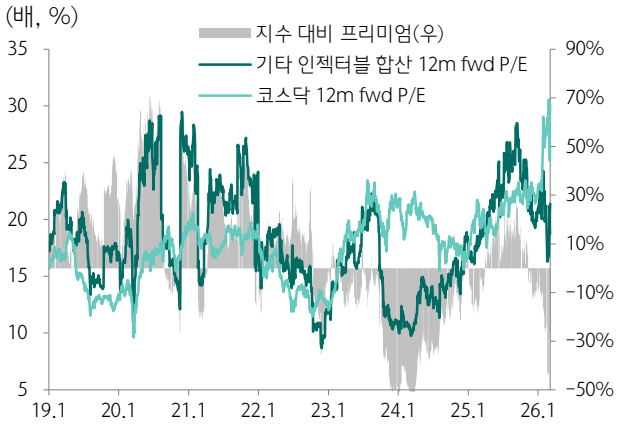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3. 톡신 업종 12m fwd P/E: (3/6) 기준 15.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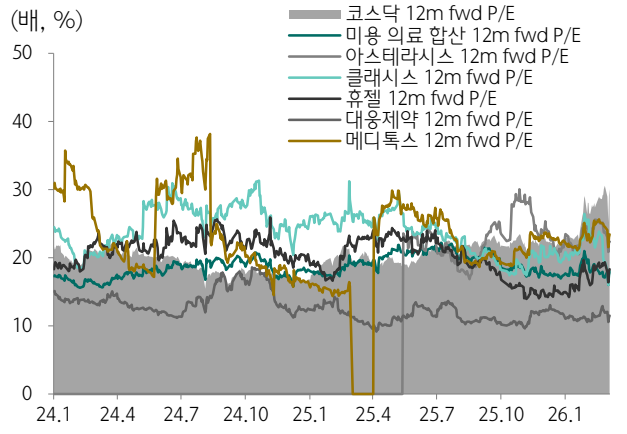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4. 기타 인젝터블 업종 12m fwd P/E: (3/6) 기준 21.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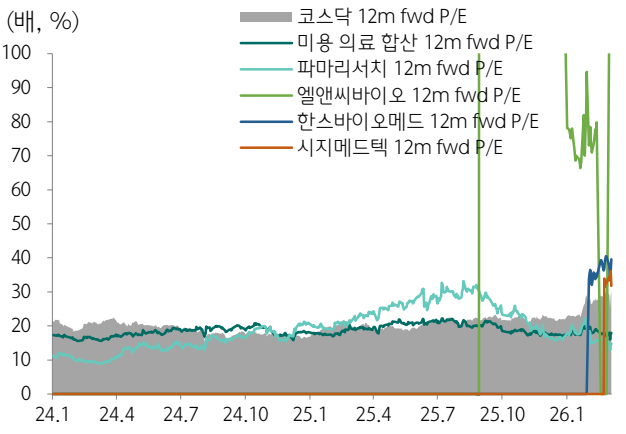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5. EBD, 톡신 주요 기업 12m fwd P/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6. 기타 인젝터블 주요 기업 12m fwd P/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2. 주요 지표 점검: 수출, 방한 관광객

1) 수출 점검: 톡신 +31%, 필러 +52%, EBD +39%

26년 1월 수출 실적: 톡신 +31%, 필러 +52%, EBD +39%

26년 1월 미용 의료 섹터 업종별 수출은 준수한 흐름을 보였다. **26년 1월 보툴리눔 톡신** 전국 수출액은 3,43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했다. **필러(기타 인젝터블)**는 2억 8,95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했으며, **EBD(에너지 기반 장비)**는 합산해 8,702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1분기가 연내 수출이 가장 적은 시기임을 고려하면, 업종별 1월 수출 성장률이 30%를 상회하는 현 상황은 긍정적이다.

1Q에 연내 수출 가장 적으므로 수출 성장률 30% 상회는 긍정적

2) 업체별: 파마리서치 +81%, 클래시스 +34%, 휴젤 +2%, 메디톡스 -1%, 대웅 -10%

업체별 26년 1월 수출 성장률: 파마>클래>휴젤>메디톡스>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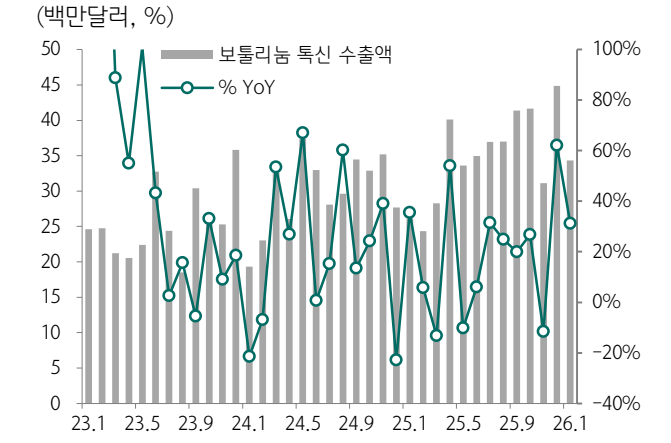
26년 1월 수출 성장률은 **파마리서치>클래시스>휴젤>메디톡스>대웅제약** 순으로 나타났다. **파마리서치**는 유럽 대리점 VIVACY향 선적이 1월 20일 140만 달러 인식되며 1월 전체 필러 수출액이 657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했다. **클래시스**는 1월 장비+소모품 합산 수출 전년동기비 34% 성장했다. 1월 장비 수출은 볼뉴머와 울트라포머MPT 모두 들어가는 유럽과 MedSystems 인수로 사업이 정상화된 브라질 지역이 견인해 52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비 164% 성장했고, 소모품 수출은 560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8% 늘어났다. **휴젤**은 1월 톡신 수출이 2% 성장했는데,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유럽, 중남미향 물량을 중국이 상쇄해 전체 수출액은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메디톡스** 1월 톡신 수출은 -1% 였는데,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중남미 물량을 아시아향 수출이 메워 마찬가지로 전체 수출액은 전년과 유사했다. **대웅제약**은 1월 톡신 수출이 -10%를 기록했는데, 아시아와 유럽향 수출이 증가했으나 미국향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여 전체 감소가 불가피했다.

클래시스 장비+소모품 +34%, 휴젤 톡신 +2%, 메디톡스 톡신 -1%, 대웅제약 톡신 -10%

전체 미용 의료 수출 고성장, 일부 업체 성장 둔화/역성장 다만 월별 수출 분산/지연 가능 → 분기/연간 수출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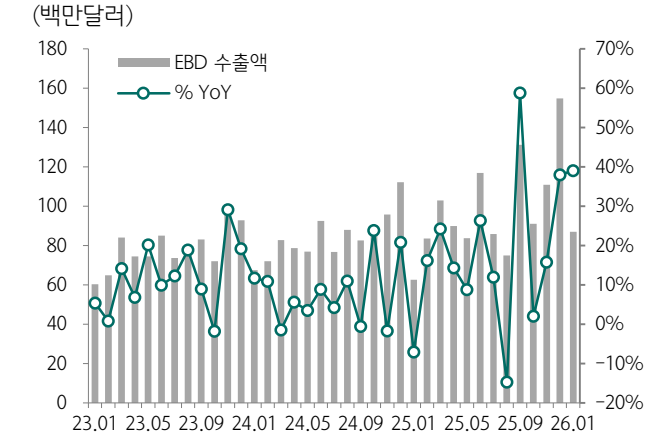
종합하면 **전체 미용 의료 섹터 수출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일부 업체는 전년동기비 성장 둔화/역성장 나타났다.** 다만 월별 수출의 경우 선적 스케줄에 따라 분산 혹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해 정확한 흐름은 분기, 연간 수출 성장률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도표 7. 보툴리눔 톡신 월별 수출 추이: 26년 1월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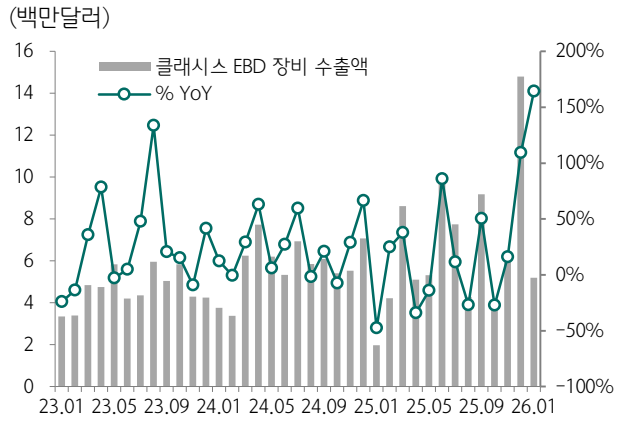
주: HS CODE 3002491000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도표 8. EBD 월별 수출 추이: 26년 1월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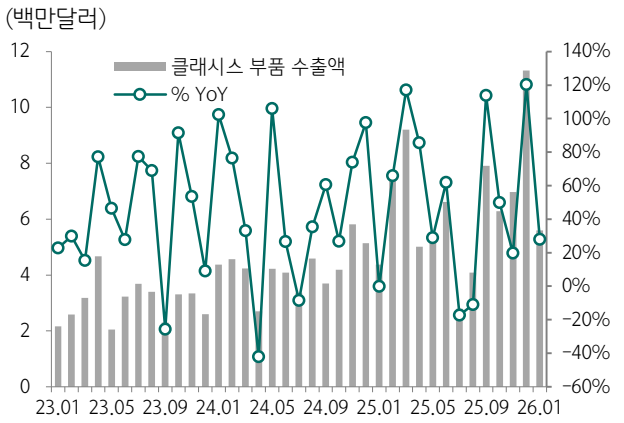
주: HS CODE 901890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도표 9. 클래시스 월별 장비 수출 추이: 26년 1월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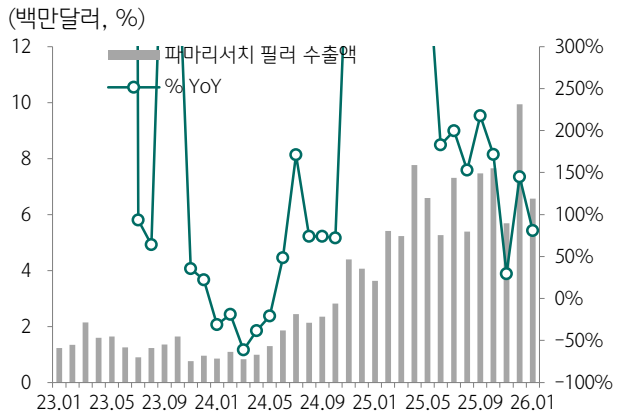
주: HS CODE 9018908900 + 9018908190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도표 10. 클래시스 월별 소모품 수출 추이: 26년 1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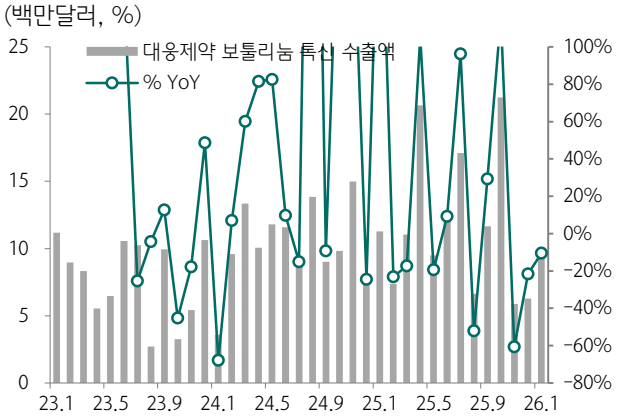
주: HS CODE 9018909000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도표 11. 파마리서치 월별 필러 수출 추이: 26년 1월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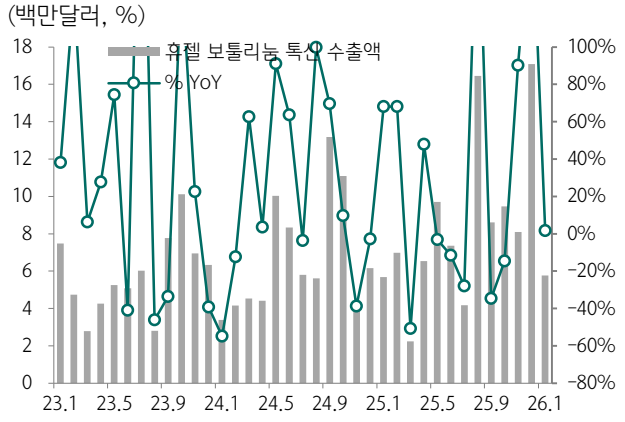
주: HS CODE 33049991000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도표 12. 대웅제약 월별 톡신 수출 추이: 26년 1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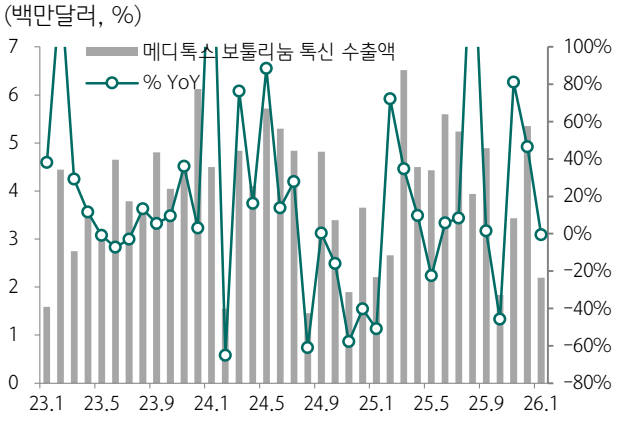
주: HS CODE 3002491000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도표 13. 휴젤 월별 톡신 수출 추이: 26년 1월 +2%



주: HS CODE 3002491000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도표 14. 메디톡스 월별 톡신 수출 추이: 26년 1월 -1%



주: HS CODE 3002491000
자료: 관세청, 하나증권

2) 방한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 성장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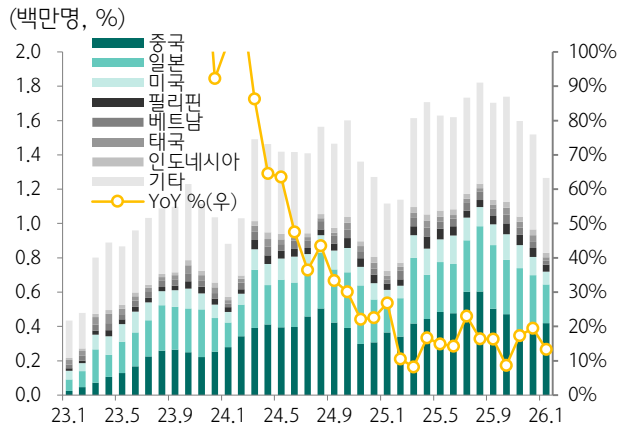
25년 방한 관광객 1,894만 명(YoY+16%) 25년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 1조 1,927억 원(YoY+87%)

작년 방한 관광객과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은 모두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다. 2025년 방한 관광객은 총 1,894만 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해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의 1,750만 명을 넘어섰다. 주요 국적별 방한 관광객은 중국인 548만 명, 일본인 365만 명, 미국인 148만 명, 태국인 33만 명을 기록했으며, 월평균 방한 관광객은 158만 명이었다. 2025년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은 총 1조 1,927억 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고, 2023년부터 매년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주요 국적별 피부과 소비액은 중국인 4,451억원, 일본인 1,778억원, 미국인 1,452억원, 태국인 235억원 기록했고 월평균 피부과 소비액은 1,733억원이었다.

26년 1월 방한 관광객 127만 명(YoY+13%), 26년 1월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 365억 원(YoY+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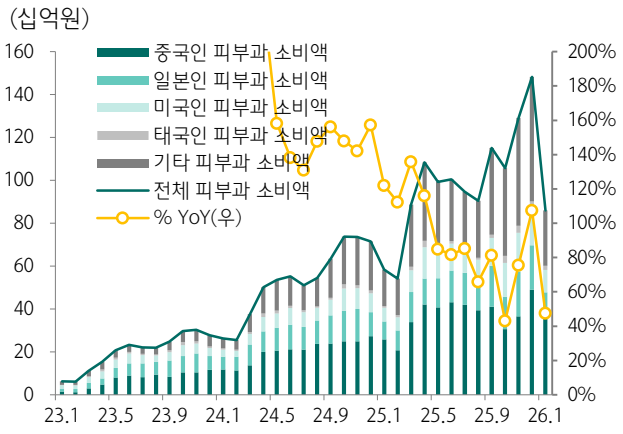
26년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27만 명 기록,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전체 33%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15% 증가해 전체 관광객 성장률을 상회했다.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은 860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으며, 그중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피부과 소비액은 전년동기대비 41% 성장했다. 국적별 피부과 소비액 증가율은 태국인과 미국인 증가율이 각각 133%,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한 관광객과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 모두 연중 1분기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1월 수치로 확인한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도표 15. 방한 관광객 국적별 월별 추이: 26년 1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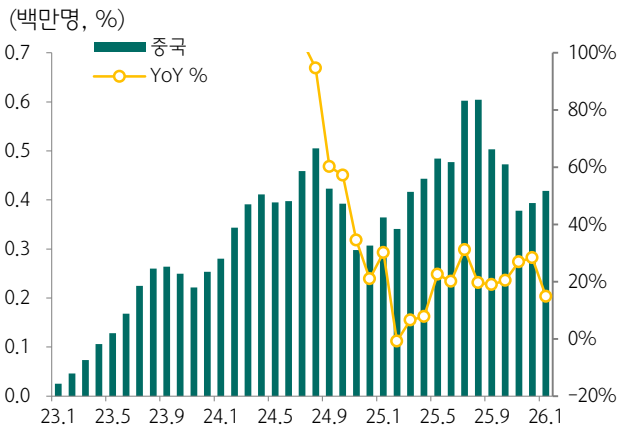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나증권

도표 16. 방한 관광객 월별 피부과 지출액 추이: 26년 1월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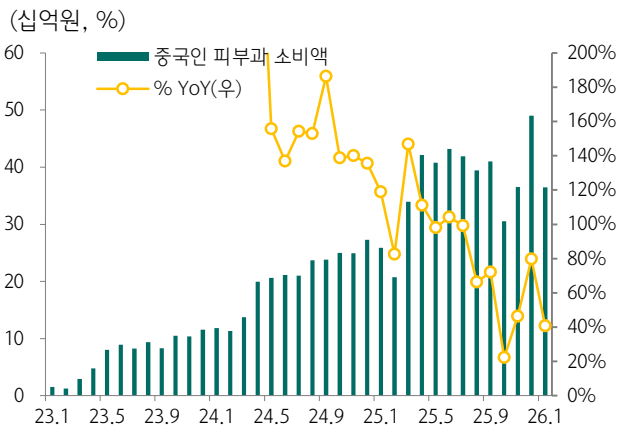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나증권

도표 17. 방한 중국인 관광객 월별 추이: 26년 1월 +15%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나증권

도표 18. 방한 중국인 관광객 월별 피부과 지출액 추이: 26년 1월 +41%



자료: 한국관광공사, 하나증권

3. IMM PE의 시지바이오 매수 관련 코멘트

IMM PE, 시지메드텍의 모회사 시지바이오 매수

IMM PE, 시지바이오 지분 51% 매수
거래대금 6,000억원 안팎
지분 매각 대금은
주력 사업 강화에 활용될 예정

언론에 따르면, **IMM PE가 상장사 시지메드텍의 모회사인 시지바이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사에 나섰다고 한다. 매각 대상은 에이하나가 보유한 시지바이오 지분 51%이며, 거래 금액은 6,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번 매각 대금을 통해 주력 사업 성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CAPA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 등 본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계획을 세울 것이라 한다. **시지바이오 지분의 49%는 여전히 기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유현승 대표 체제 하에 척추 치료, 덴탈, 골대체제 등 핵심 사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성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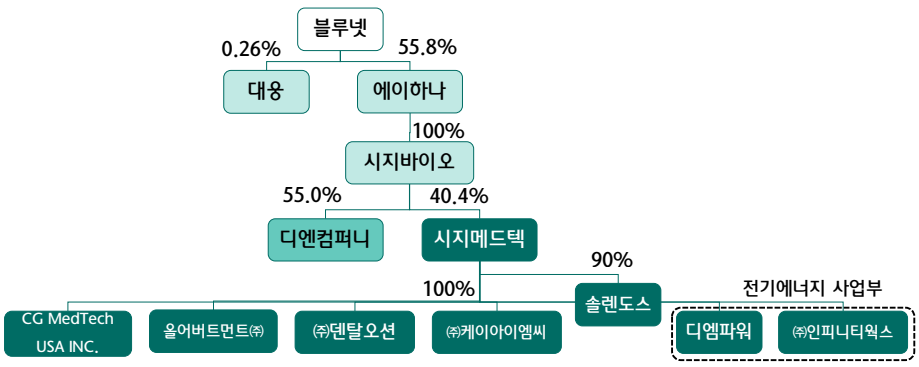
시장이 주목하는 동종진피 ECM에서의 경쟁력은 그대로

지분 매각 보도 후 시지메드텍 -12%
대웅제약과 디엔컴퍼니의
유통 계약 변경 가능성 ↓

3월 5일 지분 매각 소식이 보도된 후, 6일 시지메드텍 주가는 12.3% 하락했다. 3개월동안 시지메드텍의 주가는 183% 상승했는데, 상반기 기존에 보유한 관절 치료용 주사제인 시지리알로 인젝트를 토대로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를 출시할 예정이며 유통사는 대웅제약의 에스테틱 제품을 판매하는 디엔컴퍼니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주가 하락은 매각으로 인해 디엔컴퍼니와 시지메드텍의 대웅제약과의 연결고리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디엔컴퍼니는 약 4천여 개의 병·의원 채널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어온 대웅제약과의 유통 계약이 이번 딜로 인해 변경/해지될 가능성은 낮다. 그간 시지메드텍 주가 상승의 주된 이유가 대웅제약 미용 의료 제품에 준하는 영업망을 통해 ECM 스킨부스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이번 IMM PE의 지분 매수가 ECM 스킨부스터 사업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므로 해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대웅제약급 유통망을 통한
ECM 스킨부스터 공급 기대감은
매각 후에도 여전히 유효

도표 19. 시지바이오 지배 구조도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도표 20. 출시 예정인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 시지리알로 인젝트 파인의 전신, 시지리알로 인젝트

제품명	CG REALLO INJECT(시지리알로인젝트)
사용목적	연조직 재건 용도로서 인대, 건, 근육, (생체)막 등 손상된 조직의 치료 및 수술을 이용한 보완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체조직(피부)
주성분	Micronized Acellular Dermal Matrix + Distilled Water (미립 무세포 진피 기질 + 증류수)
형태	Injectable hydrated human collagen from ADM (무세포 진피 기질에서 추출된 인체 유래 콜라겐 주사제)
규격	0.5cc/1cc/3cc
구분	비급여(BTT01113)
저장방법	실온보관(1~30°C)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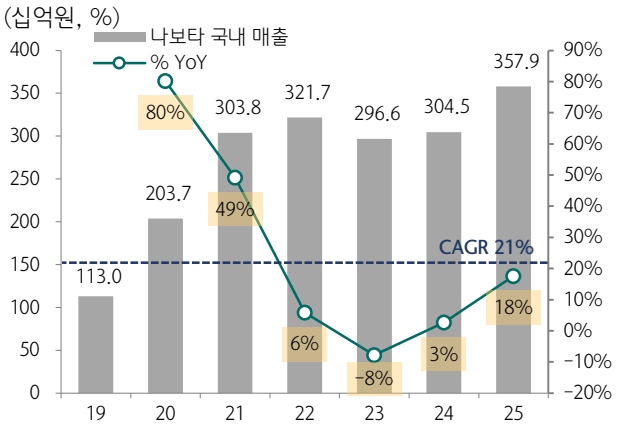
자료: 시지바이오, 하나증권

도표 21. 디엔컴퍼니 유통 제품 목록 – 대웅제약의 주요 미용 의료 제품 유통 중

제품명	품목	유형	제조사	비고
봄 & 미드포인트	HA필러	의료기기	시지바이오	-
지젤리뉴	HA필러	의료기기	시지바이오	-
셀유닛	SVF 추출 장비	의료기기	시지바이오	-
스위츠	흡수성봉합사	봉합사	한국 제조사 엠베이스	SWITS Mono, SWITS Natural, SWITS Focus 3개 SKU 유통
나보타주	**보툴리눔 톡신**	**전문의약품**	**대웅제약**	**200유닛, 150유닛, 100유닛, 50유닛 4개 SKU 유통**
브이올렛	**DCA 주사제**	**전문의약품**	**대웅제약**	**-**
케어트로핀카트리지주	성장호르몬	전문의약품	대웅제약	-
Easydew RX	화장품	병원화장품	대웅제약	포스트 레이저 라인 8개, 센시티브 베리어 라인 2개 SKU
Easydew MD	화장품	병원화장품	시지바이오	MD크림·로션 각각 1세대, 2세대로 총 4개 SKU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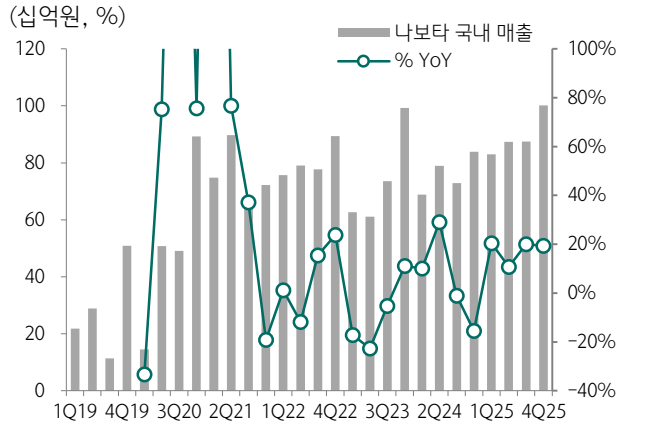
자료: 디엔컴퍼니, 하나증권

도표 22. 대웅제약의 연간 나보타 국내 매출 및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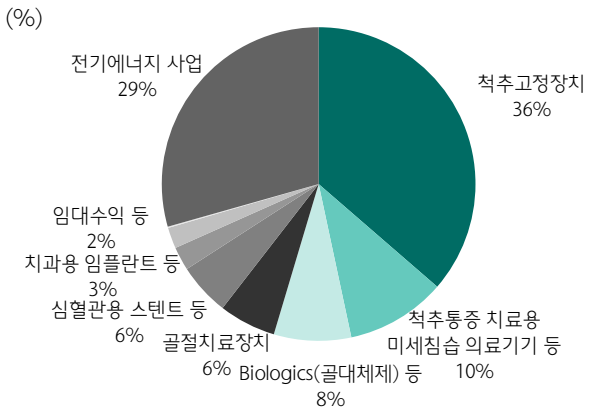
자료: 대웅제약, 하나증권

도표 23. 대웅제약의 분기별 나보타 국내 매출 및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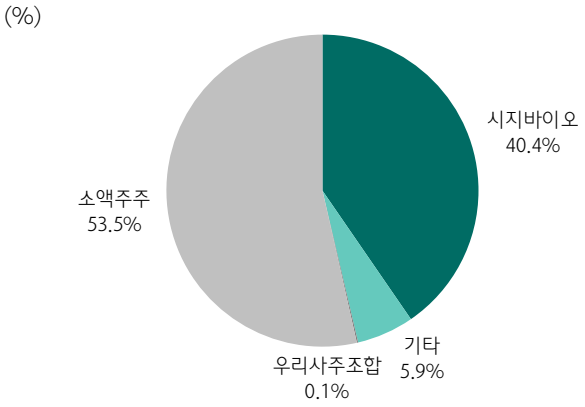
자료: 대웅제약, 하나증권

도표 24. 시지메드텍의 2024년 주요 품목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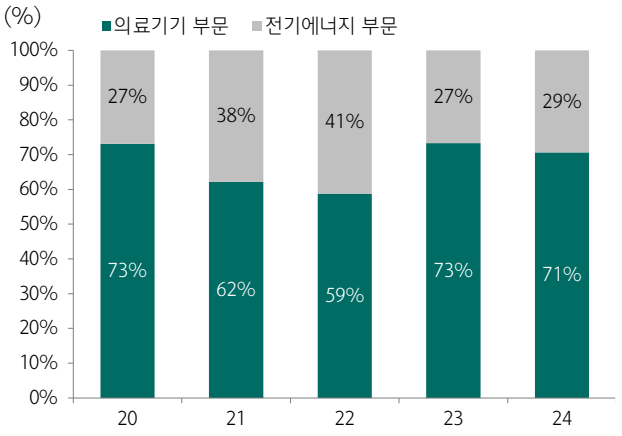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도표 25. 시지메드텍의 3Q25 기준 주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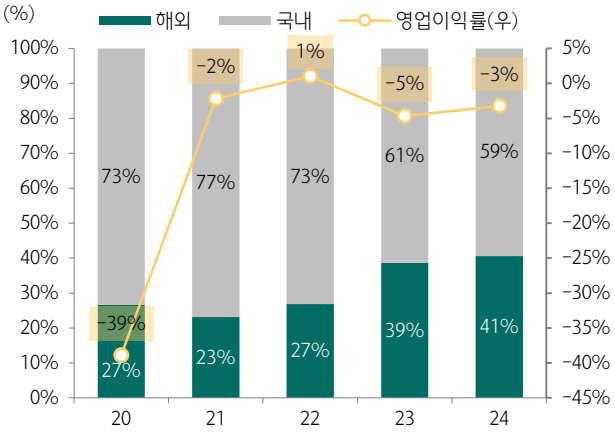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도표 26. 시지메드텍의 사업 부문별 연간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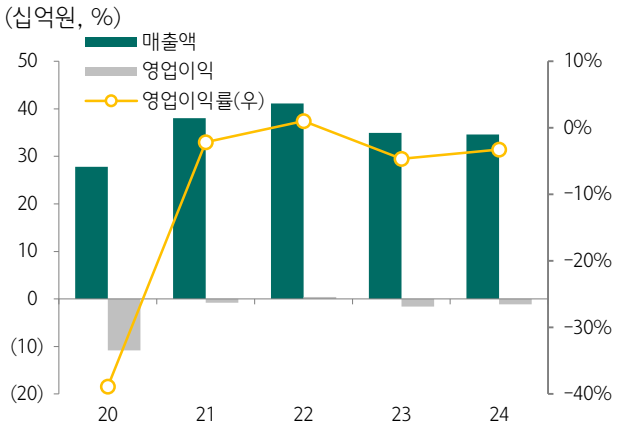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도표 27. 시지메드텍의 지역별 연간 매출 비중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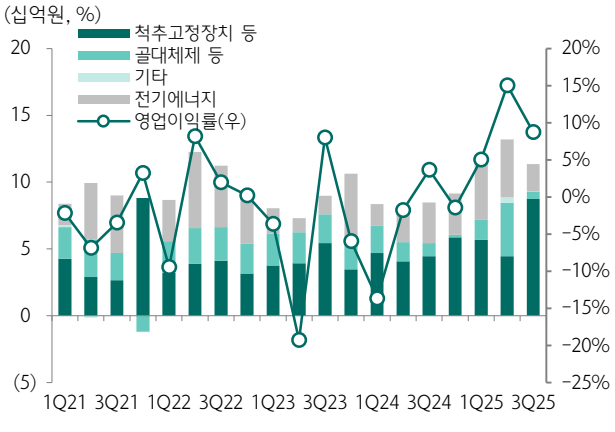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도표 28. 시지메드텍의 주요 품목별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도표 29. 시지메드텍의 주요 품목별 분기별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4. 결론: 주요 지표 견조, 업종 여전히 저평가 상태

1) 업종별 수출, 방한 관광객 및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 성장 견조

26년 1월 수출 실적: 톡신 +31%, 필러 +52%, EBD +39%

26년 1월 방한 관광객 +13%

26년 1월 외국인 피부과 소비 +41%

섹터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수출과 방한 관광객 및 외국인 피부과 소비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26년 1월 보툴리눔 톡신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했고, 필러(기타 인젝터블)는 전년동기대비 52%, EBD(에너지 기반 장비)는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26년 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13% 성장했고, 외국인 피부과 소비액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수출과 방한 관광객, 외국인 피부과 소비 모두 연중 1분기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면, 1월 수치로 확인한 주요 지표의 성장세는 견조한 수준이다.

2) 업종 대체로 저평가, 기업은 실적 전망 및 개별 요인에 따라 평가 상이

12개월 선행 P/E: 미용 의료 18.0x (YoY-8%), EBD 16.9x(YoY-19%), 톡신 15.8x(YoY-6%), 기타 인젝터블 P/E 21.4x(YoY-2%)

3/6 기준 미용 의료 섹터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는 18.0배로,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19.5배 대비 -8% 수준이다. 업종별 밸류에이션은 기타 인젝터블이 21.4배로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21.7배 대비 -2%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 EBD는 16.9배로 뒤를 이으며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20.9배 대비 -19%, 보툴리눔 톡신은 15.8배로 2025년 평균 12개월 선행 PER 배수 16.7배 대비 -6% 수준을 이루고 있다. 업종 내 개별 기업 멀티플은 기업별 이벤트, 실적 전망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섹터와 기타 인젝터블 업종 견인하는 ECM 스킨부스터 관심

주요 지표 견조하나, PER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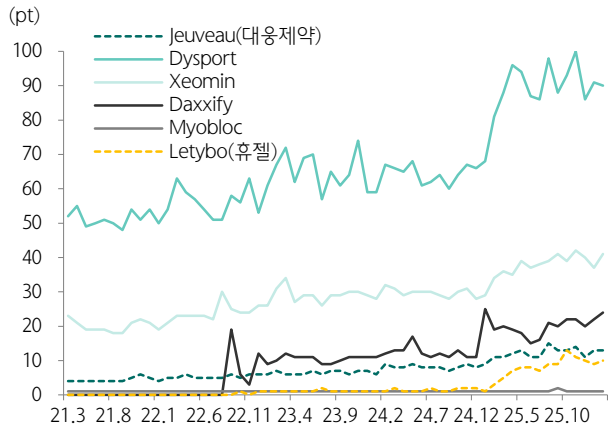
ECM 기업 섹터/업종 멀티플 견인

엘앤씨바이오 117.7x, 한스바이오메드 39.5x, 시지메드텍 31.8x

미용 의료 섹터의 주요 지표인 수출, 방한 관광객 수 및 외국인 피부과 소비는 모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치 대비 하회하며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있다. 한편, 동종진피 ECM 스킨부스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ECM 스킨부스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높은 멀티플을 형성해 기타 인젝터블 업종과 섹터 전체 평균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대감이 높은 ECM 스킨부스터 관련 기업과 섹터 밸류에이션 회복 시점에 주목할 것을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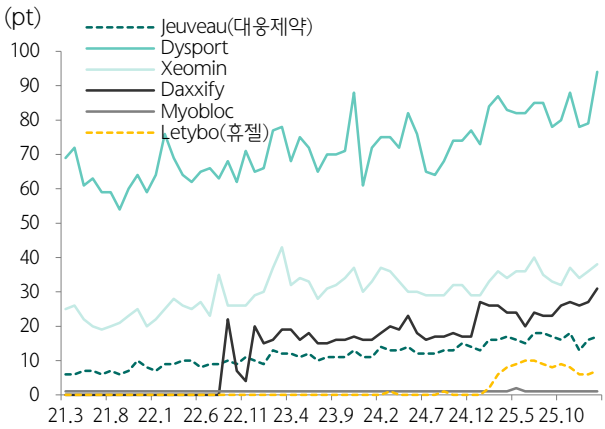
5. Appendix. 주요 키워드 구글트렌드

도표 30.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구글트렌드: 전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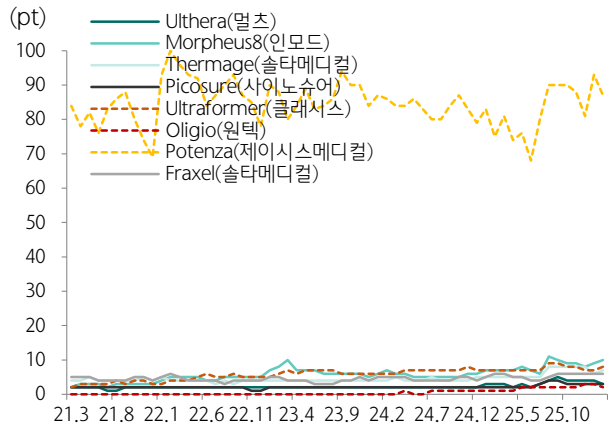
주: 자세한 트렌드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압도적 1위 키워드 Botox 제외
자료: 구글트렌드, 하나증권

도표 31.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구글트렌드: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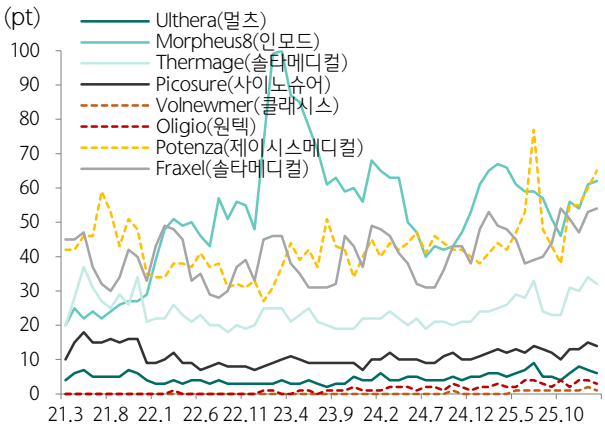
주: 자세한 트렌드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압도적 1위 키워드 Botox 제외
자료: 구글트렌드, 하나증권

도표 32. EBD 장비명 구글트렌드: 전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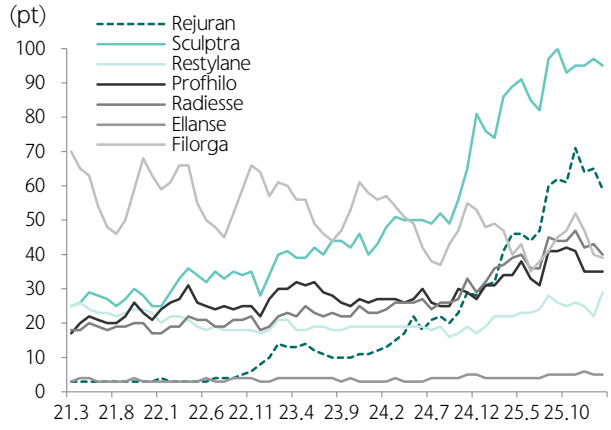
자료: 구글트렌드, 하나증권

도표 33. EBD 장비명 구글트렌드: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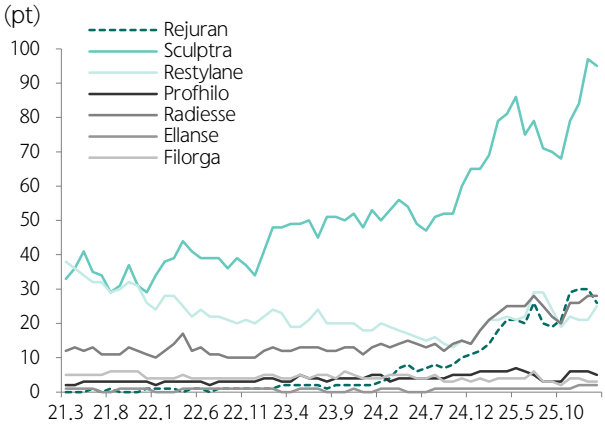
자료: 구글트렌드, 하나증권

도표 34. 기타 인젝터블 제품 구글트렌드: 전세계



자료: 구글트렌드,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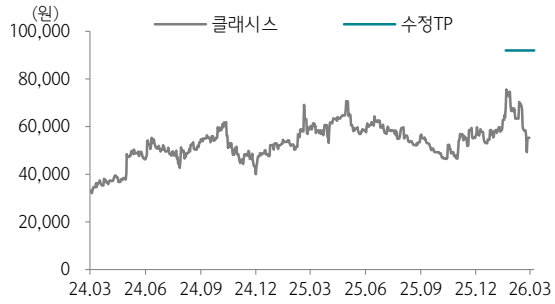
도표 35. 기타 인젝터블 제품 구글트렌드: 미국



자료: 구글트렌드,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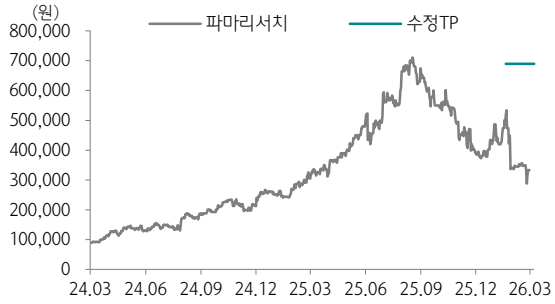
클래시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8	BUY	92,00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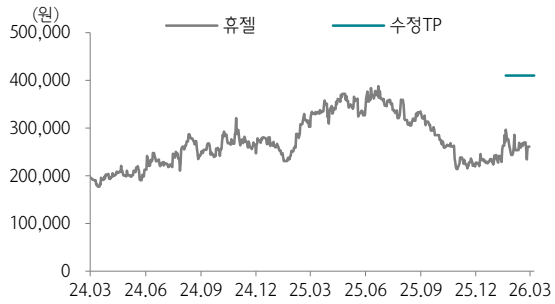
파마리서치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8	BUY	690,000		
26.1.26	담당자 변경		-	-
24.12.20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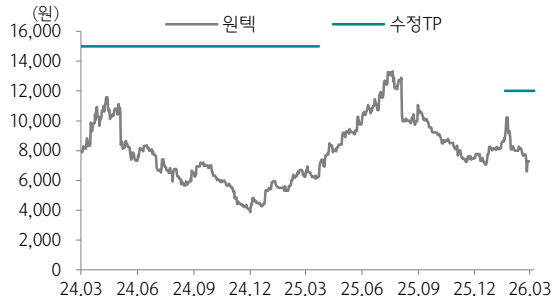
휴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8	BUY	410,000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원텍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8	BUY	12,000		
26.1.26	담당자 변경		-	-
24.10.26	1년 경과		-	-
23.10.26	BUY	15,000	-44.66%	-22.8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3월 9일 현재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 원텍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다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다혜)는 2026년 3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6%	3.24%	0.00%	100%

* 기준일: 2026년 03월 09일